세상에는 여러가지의 차별이 존재한다.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면 차별이 생긴다. 대중들은 예전보다 최근에 차별에 대한 평등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으려는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고, 차별과 역차별에 대해 논쟁이 극심할 정도로 차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있다. 현재는 차별에 대한 권리를 되찾는 과도기가 진행 중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차별은 가장 유명한 인종차별, 남녀차별부터 시작하여, 소수자 차별, 빈부차별, 더 나아가 성적(점수) 차별 등이 있는데, 이외에도 정말 사소한 차별도 있을 수 있다. 차이가 존재하고 이를 인정하지 못 하면 차별이 존재하니까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가령 n째 차별 (작자는 둘째인데 둘째 딸로써 당하는 차별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크다.) 이라는 것도 있다. 이 글은 성차별에 대해 생각해 보며 차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전 세계적으로 그 때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성차별이 존재해왔다. 이는 남녀의 성별이 다르다는 신체적인 차이가 차별로 인식된 경우이다. 실제로 남녀는 근력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성인여성과 성인 남성의 힘 차이는, 성인 남성이 12살 아이를 상대할 때의 차이와 유사하다고 한다. 즉 그 둘의 힘 차이는 성인남성이 어린아이에게 사탕 뺏기 격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신체적인 차이가 어느 샌가 차별로 인식되었다. 차별은 특정 성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가령 “남자는 울면 안돼”, “남자가 기집애같이”, “여자가 이래서 되겠냐” “여자가 이런 걸 해야지” 라는 말들이 있다. 이러한 선입견을 오히려 어릴 땐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냥 어릴 적엔 별 반발없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선입견은 살아가면서 잘 바뀌기 어려운 것 같다. 그리고 책 ‘편견’에 의하면 인간은 “수많은 경우에서 단일한 사건을 '유형화'하고, 친숙한 범주 속에 넣은 후 그에 따라 행동한다” 라고 한다. 이렇게 차별이 생겨난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차별을 할까? 이는 서로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함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성소수자를 예시로 들어 말하자면, 10년 전만 해도 성소수자가 목소리를 낼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근래 사회가 여성의 인권, 소수자의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음지에 있던 성소수자들이 많이들 커밍아웃을 했다. 사실 성소수자의 커밍아웃에 대해선 별 관심이 없다. 그들 인생인데 그들의 마음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만약 가까운 이가 그렇다면 약간의 거부감은 든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나는 비교적 관용적인 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이 친인척이라 생각한다면 약간의 거부감은 있다. 하지만 서로가 다름을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소수자들을 차별하고, 그에 따라 갈등이 발생하는 것 같다. 이러한 차별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남아선호사상에 대해 말하고 싶다. 나의 경우에는, 삼남매 중 둘째인데 오빠와 여동생을 두고 있다. 알게 모르게 차별을 많이 당한다고 생각하는데, 명절에 친인척 댁에 가면 세뱃돈으로 오빠는 3만원, 나와 동생은 항상 1만원 씩이었다. 어린 나는 대놓고 말하지는 못하고 집으로 가는 차에서 많이 울었다. “왜 오빠는 3만원이고 나와 동생은 만원인가” 차라리 3만원 2만원 1만원이었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았을 것이다. 아니면 만원으로 통일하는 방법도 분명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차별적으로 세뱃돈을 받았다. 억울했다. 또한 대학 입학 등 좋은 일에 나는 당연히 오빠와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 그리고 할머니는 아직까지도 “주방일은 남자가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신다. 한 번 대들어 봤다. 하지만 생각을 고치실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았다. 어른에게는 대드는 것이 아니라고 배웠다. 따라서 나는 어른의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닌, 이 불합리함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남존여비’ 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갑오개혁의 영향으로 20세기에 인구의 대다수가 양반을 자처하며 그 사상을 엉성하게 받아들이는 탓에,  대한민국에 이르러서 그 사상이 변질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남녀차별은 사자성어까지 있을 만큼 성행했다. 또한, 유교사상도 남녀차별에 한 몫 했다. 기원은 남녀의 완력차이라고 하는데, 이에 따라 자연스레 남자가 윗사람, 여자가 아랫사람이 되었다. 연령으로 윗사람 아랫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닌 성별로 나눈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그에 따라 각 성별의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정해두고 살기도 한다. “나는 남자니까, 나는 여자니까” 사회적인 인식 때문이라도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정해두는 것 같다. 하지만 성별에 부딪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 발생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해 발생하게 되는 차별은, 인간의 본래 습성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는 옳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나보다 윗사람이 행하는 차별이면 아랫사람으로서는 당연히 그에 반발할 수 없다. 그리고 보통 차별은 나보다 강한 사람이 행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근래에 성평등 운동, 소수자 인권 운동 등 다양한 권리 되찾기 운동이 실시되는 만큼 모두의 권리가 찾아지고 차별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본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차별을 하고 있는 각자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차별당해 잃어버린 권리를 찾되, 그 과정에서 역차별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